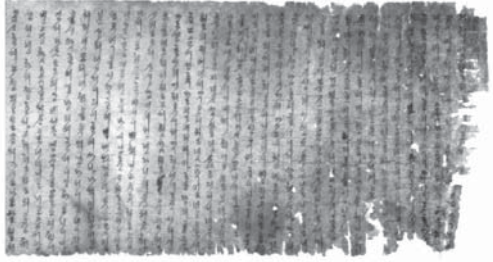


◆머느리권씨 열전 20-2

# 진주유씨 ‘경성당’ 차종부(次宗婦) 권보남(權寶男)

## 권용한의 女, 추밀공파 35세, 진주유씨 유문형의 부인

안산시 상록구 만수동천길 29(부곡동 237)에 자리 잡고 우리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경성당'의 권보남(權寶南·1935년생) 여사는 5대 차종부(次宗婦)이다. 경성당은 지난 1850년께 지어진 오래된 우리 전통 가옥으로 안채는 약 200여 년 전에 지어졌다.



<고행록> 1718년(숙종 44) 유명천의 부인 한산이씨(1659~1727)가 60세에 기록한 회고록

19세기 안산 지역의 양반사회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료임에 틀림없다.

대전에서 태어난 권 종부는 지난 1962년 이곳으로 시집을 왔고 1993년부터 종부로서 경성당을 지키고 있다. 종부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그들의 고되고 모진 삶은 종부에서 종부로 전해져 오는 '고행록'이라는 책을 봐도 알 수 있다.

'고행록'은 당시 종부로서 최고의 영예인 정경부인에 올랐던 한산이씨께서 한글로 써내려간 책자로, 종부들의 가계와 혼인, 출산, 유배, 죽음 등에 관한 크고 작은 내용이 담겨 있다. 관료였던 남편을 유배지로 떠나보내고 그곳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고된 삶,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고통 등을 담담하게 적어내려 간 고행록을 통해 종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참아내야 하는 일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

'고행록'은 조선 숙종 때 문신인 류명천(1633~1705)의 부인 한산이씨(1659~1727)가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이다. 이씨는 정쟁에 휘말린 남편을 따라 유배지를 떠돌다가 47세에 남편을 떠나 보내고 이보다 앞서 20대 때는 딸과 아들을 잃는 기구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말씀, "돌아켜 생각하니 세상만사 다 뜬구름 같고 서산으로 지는 해와 같노라... 무슨 죄와 벌로 옥심 년 되도록 이토록 서러우며 괴로운가? 험탄하며 원망하노라"



결혼, 1963년 12월 8일 중무로 예식장, 신부 권명원(權銘遠) 원래 이름인데, 남야 기원으로 보남으로 했다가, 남편이 이 이름이 더 좋다해서 예식장에 기재, 그리고 40여년 후 어느 날.

진주유씨 21세손인 유신[1748~1790]의 아들 유중서(柳重序)[1779~1846]가, 둘째 아들 유방[1823~1887]이 살림을 낼 때 지은 집이다. 경성당은 원래 서울 남산에 있는 진주유씨 18세손 유명천(柳明天)·유명경(柳命聖) 형제가 공부하던 서실인데, 후에 유원성(柳遠聲)이 차명하여 당호로 썼다.

경성당은 1850년경 건립된 가옥으로, 안채는 약 200여 년 전에 지어졌고 사랑채는 약 10여 년 전에 지어졌다. 아래채는 1983년 철거되고, 그 자리에서 동쪽으로 조금 물러난 자리에 시멘트 건물 한 채를 세웠다. 사랑채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안채 또한 1983년에 철거하고 서울에 있던 한옥을 이전하였다. 안채의 재목은 서울의 미아리와 종로



유회당과 기공재는 권이진(1668~1734)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건물과 그에 소속된 재물로 보문산 남쪽 기슭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권여사가 결혼 전까지 살던 곳이다.



유회당과 기공재는 권이진(1668~1734)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건물과 그에 소속된 재물로 보문산 남쪽 기슭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권여사가 결혼 전까지 살던 곳이다.

구 당주동에 있던 한 한옥에서 많이 가져다 썼으며, 들보는 인천에서 구입한 수입목[미송]으로 대신하였다.

원래는 사랑채 동남쪽에 각 1칸씩의 찻간과 뒷간, 그리고 3칸의 헛간으로 구성된 헛간채가 따로 있었고, 노비들이 거거하던 4채의 행랑채도 있었다. 또 사랑 마당 남쪽에 330.58㎡에 이르는 넓은 연못이 있었으나 사랑채 누마루 곁에 있는 우물물이 줄어들어 급수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40여 년 전 말로 만들었다.

차종부가 되는 권보남(權寶南) 여사이다. 고 유문형 집안은 기호 남인을 대표하는 3대 가문중 하나인 진주유씨 집안으로, 이 집안은 대종가에서 5대조 때 분파한 차종가이다. 고 유문형은 진주유씨 27세손이다. 경성당은 2017년 9월 안산시 향토문화재 제 32호로 지정되었다.

권 여사는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고행록뿐만 아니라 사랑채에 있던 고문서와 그림들도 수습해 때때로 바람을 쏘이며 소중히 보관했다. 고행록을 비롯해 경성당 종가가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한 옛 문서와 그림 등은 1천616점이나 된다. 정수환 한중언어 연구원은 "기탁 결정은 지금 고인이 되신 권 여사의 남편이 하셨지만 고문서 보관에는 권 여사의 보이지 않는 정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 유회당과 안산 경성당 그 결합의 의미는 매우 크다. 뜻을 품었으니 마침내 이루어진다(有懷竟成)는 의미이다. 남편 진주 유씨는 남인계열이고 부인 안동 권씨는 서인계열의 집안이나 그러나 탄옹 권씨는 비록 송시열이 사돈이었으나 전부 그에 동조하지는 않았고 독자적인 의견으로 절조를 지켰다.

그러면 권 여사의 탄옹공으로부터 시작하는 가계를 잠시 살펴보자, 탄옹공 권시(權謙)의 후예로 탄옹공 이상은 워낙 고명하고 이미 소개된 바가 많아 생략한다.

**권복남 여사 선조 프로필**  
**24세 시(認)** 1604~1672년,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유학자. 자는 사성(思誠), 호는 탄옹(炭翁), 본관은 안동(安東), 남달리 총명하여 중국의 안자(顔子)에 비견되는 평, 학문이 뛰어나 효종의 사부로 임명되었으나 거절하였고, 후에 사돈이었던 송시열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올라서 이후 서인(西人)으로 활동하며 1660년 예의에 대한 의견으로 다물 때 같은 서인인 송시열의 편을 들지 않고 윤선도의 편을 들었다가 송시열 일파에게 미움을 받은 적도 있다. 1668년 한성부 좌윤에 임명되었으나 거절하고 충남 공주로 내려가 학문에만 전념했다. 송시열과 같은 서인 기호학과도 예론에 밝았다. 좌랑을 지낸 권득기(權得己)의 아들, 송시열의 사돈이다.

**25세 유(惟)** 정릉잡봉, 장례원 사평, 전의현감, 62세 졸(1684년) 증 좌찬성

**26세 이진(以鎭)** 공민공, 유회당(有懷堂), 생년 2등, 별시문과, 병조좌랑, 사간원정언, 공조참의, 공조판서, 지중추부사, 연경사신단 부사, 안동부사, 안

동부사 재임 시 능동 및 태사묘 정비에 공헌. 67세 졸(1734년) / **27세 형징(洞徵)** 통덕랑, 62세(1756년) / **28세 익(世穆)** 통덕랑, 42세 졸(1752년) / **29세 상희(尙熺)** 공민왕사촌(1734년),한성부서윤, 용안현감, 76세 졸(1809년) 증 사복사정 / **30세 강(塲)** 유학 64세 졸(1823년), 증 이조참의 / **31세 용진(用鎔)** 생원3등과, 36세 졸 (1857년) 증 이조참판 / **32세 영수(永秀)** 등과. 호조참판, 한성부좌윤, 60세 졸 (1867년) / **33세 경채(景采)** 진사1등급 73세 졸 (1938년) / **34세 용한(容漢)** 배재학당, 금음조합, 63세 졸(1961년)

권보남의 부친 김용한의 족보 (부분), 밑에 남편 유문형

有懷竟成 유회당과 경성당 (뜻을 품으니 마침내 이루어도다) 진해吟 有懷無愁 寶男權 유회당은 무수동에 있고 여기서 보남이 권문에서 태어나고 (희망이 있고 걱정이 없는 속에 소중한 아이들이 황화목 처럼 나올 것이라니) 竟成萬樹 文馨柳 경성당은 만수동에 있고 여기서 문형은 유문에서 자라나니 (마침내 만구루의 나무, 번성함을 이루고 글 읽는 향기 버드나무까지 피지네) 二人志志 宗堂維 유회이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경성당을 유지하니 (두사람 부부가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종갓집의 제사를 모두 받들고 이어나가니) 母子好緣 銘遠久 세 아들은 모두 좋은 인연은 오래 전하여 자손 번성하는 것! (유회당의 효심과 경성당의 인격도야의 만남은 영원한 인연소생의 결과라)

글 권요철 기자

## 현행 상속세법의 주요내용

###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물려줄 재산도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일까?

상속세란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자녀들(상속인)이 무상(공짜)으로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공짜)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불로취득재산(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유의 누진세가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산이 무상으로(공짜로) 생긴다는 점에서는 상속과 증여가 같지만,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이고, 재산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증여란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과세방식에 있어서는 상속과 증여는 큰 차이가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죽은 사람) 한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상속재산이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나누어졌더라도 세금은 피상속인(죽은 사람) 한명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상속인의 숫자에 관계없이 상속세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받은 각자를 기준으로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하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제적 재산이 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이 빚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빚)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경제적 재산만이 증여 대상이 되며, 빚은 증여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생활의 지혜나 경험능력 등에 조기 교육 등 정신적 재산은 아주 중요한 증여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세대상은 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피상속인이라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 또는 실종선고인)을 말한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만 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아 출생과 동시에 자기몫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다.

유증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유언이란 형식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유증은 유언의 방식(유언장)으로 이루어진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이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며,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자이며 상속재산의 평가와 배분에 대한 기준일자가 되는 날을 말한다.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서 자연인의 현실적인 사망시점을 말하며, 자연사망은 물론 실종선고에 의한 법률상의 제적인 사망도 포함된다.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며,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담당의사의 사망확인서에 의해 죽은 것으로 확인한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본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한다.(민법제27조제1항) 그러나 전쟁에 참가한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의 종료 후 또는 선박의 침몰 등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27조제2항)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며, 실종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던 모든 사항이 회복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기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권요철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 추밀공파 매헌공 종중 시조 태사공 춘향제 개최

추밀공파 매헌공(梅軒公 權遷, 1363~1419) 종중(회장 권태관) 회원 15명이 4월 5일 시조 춘향제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회에서 중령자 한 대를 빌려 권요철 추밀공파회장을 비롯하여 권요철 고문, 권순호 고문, 권태관 회장, 권요철 총무, 권혁원 대총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일행은 시조 태사공과 아시조 낭중공 춘향제에 참석하고 충북 음성 방축리에 위치한 양촌 권근 삼대 묘소를 참배했다.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선생은 조선 최초의 대학학을 역임했고 아들 문경공(文景公) 지재(止齋) 권재(權載, 1387~1445)가 그 뒤를 이어 문형(文衡)의 자리를 지켰으며 손자 익평공(翼平公) 소한당(所閑堂) 권립(權立, 1416~1465) 또



한 대학학을 지내 조선 최초로 삼대에 걸쳐 대제학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권행원 편집국장

## 2024년 안동권씨 원주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원주종친회(회장 37세 권순구, 사무국장 38세 권용덕) 제40차 정기총회가 3월 23일 오후 5시 원주웨딩홀 2층에서 종친과 종친가족들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춘추가 90이 되는 신 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석하였다. 원주시 인근 황성근 안동권씨종친회 권병규 회장님, 황성근 권용준님도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식전 행사로 초대 가수인 밴드의 노래와 연주가 20여 분 있었고, 권순구 회장님의 색소폰 연주 '허공', '숨어 있는 바람소리'에는 커다란 함성의 앵콜이 쏟아졌다.

권용덕 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 행사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권영익 부회장의 개회선언을 하였다.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만배를 하였다.

다음은 대학생 1명(충남대 권정환)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회장님은 인사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한 종



친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종친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의 시간을 계획했으나 만찬 맛있게 드시고, 즐겁고 화목을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기원하였다.

사무국장의 2023년 경과보고(종친회 설립과 역대회장), 권영익 부회장 감사의 감사보고(수입과 지출이 적정), 사무국장의 결산보고(수입2,385만원 지출855만원 잔액1,530만원), 2024년 사업보고(운영위원 추가 선임 권이중 권이람 권오찬, 규약개정 운영위원 연회비 20만원, 5월4일 청장년 체육대회와 11월19일 시조님 추향제 참석 계획) 등이 있었다.

2부 행사로 만찬과 화합의 시간이 있었다. 초청가수의 사회로 장기자랑과 경품추첨이 있었다. 만찬이 이루어지는 동안 권영길의 4팀 종친님들의 노래, 머느리 5팀의 독창과 합창이 있었다. 권오숙님의 흥겨운 손가락 장단치기 자랑도 있었다. 권혁준(초4년)과 권혁찬(초1년) 형제의 태권도 품새 '태극 6장' 시범 때에는 "앗" 하는 종친들의 기압도 함께 하였다. 권세희(중1년)의 플라타와 권세영(초2년) 바이올린 2중주 '에델바이스', '즐거운 나의 집'이 있었다. 어린이들의 장기자랑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초청가수의 노래와 밴드의 연주도 흥겹게 이루어졌다.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이 제공한 흥삼세트, 한과세트, 주방용품, 상품권 등 30여 점의 경품은 장기자랑 참여자에 대한 선물과 경품 추천된 분들에게 증정되었다.

권순구 회장님은 끝인사에서 오늘 행사가 즐거웠기를 바랐고, 5월 청장년체육대회와 11월 시조님 추향제에 많은 참석을 부탁하였고, 다음 행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자는 말로 끝맺음을 하였다. 초대 밴드의 연주는 이후에도 한창 동안 계속되었다. 권용덕 사무국장

## 제32차 부산부녀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부산부녀회(회장 권쌍희)의 제32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11일 저녁 6시 반, 부산 연산동 해일부페에서 열렸다. 부녀 회원과 내빈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기를 마친 권쌍희 회장과 권남인 총무 자리에는 권정희(강서) 회장과 권쌍자 총무가 새로 선출되었다.

권쌍희 회장은 이날 인사에서 92년 2월 창립된 부산부녀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전임 회장님들 노고와 원로 어르신들 사랑과 우리 회원들 열성이 삼위일체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유능한 새 회장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더욱 발전하는 부녀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그 동안 도와주고 아껴주신 어르신, 축전들에게 감사사를 표하였다.

새로 취임하는 권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종사도 잘 모르고 어려모로 부족하지만 종친 어르신과 선임 회장님들을 믿고 취임을 수락하였다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부산부녀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송산(영현) 부산종친회장은 축사에서 대외적으로 부산종친회를 빛내주는 부산부녀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송계(길상) 고문과 원광(영호) 고문도 인사말을 통해 부산부녀회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고 열성적 활동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개근상 13명, 칠순 6명에 대한 부녀회 자체 기념품과 금일봉이 전달되었고, 임임하는 권쌍희 회장과 권남인 총무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